



특집 _ 2025년 재외동포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이슈 & 화제 _ 이상덕 청장, 대회 사전 점검차 미국 방문 LA·휴스턴 거쳐 애틀랜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3차 대회는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 될 것”

정책 돋보기 _ “내국인 인식개선 위해 재외동포 독립운동사 편찬·교육해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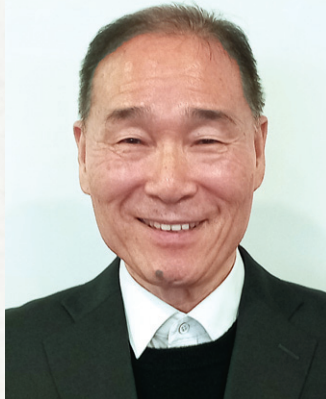
신생(新生) 재외동포청,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

2025년 2월 현재, 전 세계 181개국에 는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 남북한 7천만 동포의 10%에 해당한다. 부산과 대구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적 의미를 넘어선다. 재외동포는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행위에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각성이 동반한다. 동시에 글로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통찰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정도는 낮다. 각계 지도층조차도 얕은 인식에 머물러 있고, 언론에서도 깊이 있는 조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경우, 단순히 과거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로만 이해한다. 국운이 쇠하던 시대에 형성된 퇴행적 인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게 나라가 되었다. 재외동포는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 차세대의 글로벌 진출, 우리의 경제·문화력 증진 등,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요컨대 지금이야말로 재외동포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할 국가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족한 정부 기관이다. 2023년 6월에 태어났으니, 이제 20개월이 겨우 지난, 아직은 '신생(新生) 재외동포청'이다. 재외동포청의 사명은 막중하다. 우선은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민족 글로벌 공동체의 힘과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케 해야 한다. 이는 물론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가 달아야 한다. 이들 목표를 구체적 과업으로 풀어내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이를 지혜롭게 추동할 정책과 전략의 정교함도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의 업무는 다층적이고 복잡적이다. 현안과 정책이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요 관계 부처만 해도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장)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이들 부처와의 원활한 협업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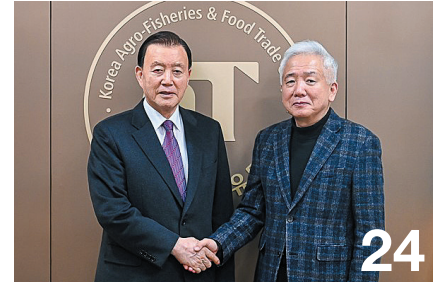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도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부처들이 재외동포청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목상의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율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현재 재외동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사업 중 하나는 국내 귀환 동포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실행할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긴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천500여 개 한글학교의 운영 문제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한 공조가 없이는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인력과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생 기관이므로 그러하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원을 필요로 하듯, 신생 재외동포청 또한 관계 부처의 상호적 협력과 우호적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재외동포와 국민의 성원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을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책임 있는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한다. 신생 재외동포청이 국민의 이해와 관계 부처의 협력 속에 탄실하게 자라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장**





02 창을 열며 신생(新生) 재외동포청,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장)

04 특집 2025년 재외동포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한민족 공동체 총체적 역량 확대해 나갈 것”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할 것”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확대위해 교육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구축”
“편리한 동포 생활위해 원스톱 디지털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10 이슈 & 화제 이상덕 청장, 대회 사전 점검차 미국 방문 LA·휴스턴 거쳐 애틀랜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3차 대회는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 될 것”

14 정책 돋보기 “내국인 인식개선 위해 재외동포 독립운동사 편찬·교육해야”

16 초대석 한글학교 어린이합창단, 미국 카네기홀서 첫 공연

18 뉴스 속으로 이상덕 동포청장, 호주 동포 방문… ‘차세대 세미나’ 개최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 동포 100명 영주귀국
동계 아시안게임 종합 2위… 역대 최고 성적… ‘청초당’ 봉사단도 금메달감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김현태 신임 회장 취임
동포협력센터, 동포 홍보 서포터즈 ‘KrossOver’ 운영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24 OKA 뉴스 재외동포청,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 연이어 요청

25 기고문 “한반도를 넘어선 큰 생각 가져야 인구문제 해결 된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현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총체적 역량 확대해 나갈 것”

이상덕 청장, 신년 브리핑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개

재외동포청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매진하겠다고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11일 밝혔다.

이날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재외 동포 정책 강화체계 확립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 생활 등을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청장은 “K-컬처 등 한류가 지구촌에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동포사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동포청 설립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재외동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86만에 달하는 국내 귀환 동포와 2007년 이후 파막조차 안 하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포청은 우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격년으로 '2025 재외동포 현황'을 발간해 정책과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2023년에 비해 32% 증액된 186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 차세대 모국연수 참가자를 지난해 2천100명에서 올해 2천600명으로 늘렸다. 취약계층 보듬기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사할린 동포와 자녀의 영주귀국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안정적 모국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국내 체류동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국내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지원에 나선다. 현재 국내에



신년 브리핑하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귀환 동포는 조선족과 고려인을 포함해 86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동포청이 사업예산을 배정해 국내 귀환 동포 지원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또 내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동포청은 올해 주요 행사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5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 4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연중행사로 '한상넷'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에 비즈니스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모국과 동포사회 간 소통 플랫폼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TV(가칭)'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할 것”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도 중점 실천과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중점 실천과제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이다.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우선 사할린 동포 등 ‘국내 귀환동포 정착 지원 정책’을 주요 재외동포정책으로 규정했다. 또,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 절차 등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 변경 및 수행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 및 홍보사업 등 수행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두 번째는 범정부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은 지난해 1월 30일 수립됐으며, 같은 해 9월 9일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 첫째,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내실화이다. 현행 법·제도분과위원회, 차세대동포·교육분과위원회, 역사적특수동포분과위원



11일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앞줄 가운데)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조 장관 오른쪽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회, 동포서비스 분과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재외동포정책의 분야별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발굴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과위 회의 실적을 종합하여 장·차관급 상위 회의체(재외동포정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연계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재외동포현황 통계 개선 및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 거주 국가별 재외동포현황인 '2025 재외동포 현황'을 조사해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관련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는 동포사회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다. 이를 위해 미주, 유럽, 대양주, 아주, 러시아·CIS 등 재외동포 거주 지역별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의 세대교체, 국내 체류 동포 규모(귀화 동포 포함)의 증대 등 분야별 현안 대응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25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과 '학술세미나'도 추진한다.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확대위해 교육 강화”

차세대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가 중점 실천 과제

재외동포 교육 강화

재외동포청의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두 번째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확대이다. 이를 위한 중점 실천과제 첫 번째는 재외동포 교육 강화이다. 동포청은 재외동포 교육강화를 위해 우선 한글학교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통해 참여학생과 교사 증가 등 차세대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도 2023년 141억 원에서 올해는 45억 원(32%)이 늘어난 186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연수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및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수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교수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테디코리안 웹사이트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대를 통한 편의성을 향상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연령 등 학습자 특성 및 학습 목적에 맞춘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동포의 교육·문화·연수 시설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건립될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7천63㎡ 규모의 교육문화센터는 전시관 운영 및 체험학습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주 역사 교육 제공 및 재외동포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재외동포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차세대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차세대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차세대 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모국 초청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청 규모 면에서 지난해 2천100명에 8회 연수를 올해는 2천600명, 1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6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조감도

초청 장학사업 추진 및 체계도 개선한다. 올해는 재외동포사회 및 모국에 기여할 우수 인재 100명을 신규 선발해 학위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생간 교류 활성화, 국내외 거주 졸업생 교류, 인재 DB 구축 등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가칭 '글로벌 차세대동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세대교체 등 동포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지역 분야를 대표하는 차세대동포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해 차세대 리더, 입양동포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과 재외동포 정책 제안, 어젠다 선정 및 위원회(가칭) 구성 등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도 실시한다. 재외동포의 국정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 20~34세 재외동포 청년의 재외공관별 인턴십(6개월) 활동을 지원한다.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및 국내외 취약동포 지원 강화

2025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3번째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한 중점실천 과제는 아래와 같다.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거주국 현지 사정에 맞춘 권익 신장을 지원한다.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동포사회 영향 검토 및 지원과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복수국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다.

특히 복수국적 제도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거주국에 직접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계기로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을 벌인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벌인다.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한 지원

먼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동반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생활 여건 실태조사도 최초로 시행한다.

또한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다변화도 꾀한다. 2007년 이후 장기간 미수행한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지 고려인동포의 사정에 맞춘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한-우즈벡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도 올해 설계 사업을 우선 벌인다. 이밖에 베트남 귀환여성



9일 강원도 동해항을 통해 80년 만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에게 변철환 동포청 차장이 환영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 국적 자녀 지원과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국내 체류 취약 동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정책 추진

국내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청은 ①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지역별·지자체별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진 ③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실시 ④ 관계부처·국회·지자체·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⑤ 국내동포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 등도 추진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재외동포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①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국내 교과서 수록 ②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③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④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를 추진한다. **창**

“지역별 · 분야별 · 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구축”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지역별 · 분야별 · 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첫째, 재외동포 교류 ·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대표성 있는 동포단체가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등을 진행함으로써 내실화를 꾀한다. 이어 재외동포 문학상 부문 개편, 시상금 증액, 연계 초청행사 개최 등을 통한 문학상 공모전 내실화 및 권위 제고를 추진한다.

둘째, 재외동포사회 맞춤형 사업 지원 내실화 및 관리 체계화이다. 정부 동포정책에 부합하는 재외동포 교류협력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및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인 이주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따라서 이같은 지역별 이주 역사 기념 등 계기성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동포사회 역량 강화 및 세대교체 대비, 신 · 구세대간 협업사업 지원을 늘린다는 게 목표이다.

셋째, 차세대동포 역량 강화이다.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약 7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지역별로 핵심 차세대동포 단체를 발굴해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차세대대회 개최 지원 등도 추진한다.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첫째, 오는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덕 청장이 사전점검 차 현지 출장을 다녀왔으며, 국내 외 순환 개최를 통한 국내 기업의 판로를 다각화 한다는 복안이다. 또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국내 기업 및 동포 경제인 수요에 부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상시 비즈니스 사업 내실화를 추구한다. 우수 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한 국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경제인 동포간담회 모습.

내 · 외 경제인 연계 및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한상넷)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상시 해외 진출 자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셋째, 한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우수 재외동포 기업의 모국 투자 촉진을 통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계기로 지자체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넷째,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을 진행한다.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에게 해외 동포기업 인턴십을 제공한다. 올해는 동포청 30명, 지자체 9명 등 모두 3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창**

“편리한 동포 생활위해 원스톱 디지털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도 추진

올해에는 더 편리해진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시범실시에 이어, 최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후, 전자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원 확인은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 중 하나로서, 인증센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상에서 아포스티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통해 동포청 민원 서비스를 인천공항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등록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한다.

끝으로,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제시했다.

① (국내동포) 국내에 거주·체류 중인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체류 지원, 생활역량 강화, 산업 및 생활안전, 사회적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소재 민간 단체의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②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는 모든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하여 이산의 아픔없이 국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 직계비속 1명만이 아니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주귀국하여 국내에 정착 중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5년에 최초 시행되어 향후 실효적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에서 이상덕(왼쪽서 여섯 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시범 서비스 개시 버튼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다.

③ (국내기업)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동포 경제인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자신감을 갖고, 폭넓은 수출 기회를 얻는다.

④ (해외거주 동포)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 방문없이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으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국내 전자정부 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휴대전화 본인확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⑤ (모든 동포)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언제든지, 모국 소식과 정책, K-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2025년부터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재외동포TV에서 재외동포들의 일상 시간에 맞추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상덕 청장, 대회 사전 점검차 미국 방문 LA · 휴스턴 거쳐 애틀랜타

각지서 동포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산불 피해 복구 격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인 미국 애틀랜타를 5~7일 방문해 사전 점검하는 등 대회 성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의 장인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17~20일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함께하는 행사로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천여명과 일반 관람객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개·폐회식, 400개 부수가 개설되는 수출상담회, 경제 포럼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등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살펴봤다.

또 애틀랜타 재외동포 경제인과 간담회를 열어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위한 동포청의 비전을 소개하고 동포사회의 대회 참여도 독려했다.

“국내 기업인들에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대회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장은 “각 거주국 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위상을 갖춘 한상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한상기업과 국내 기업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탄탄하게 성장한 전 세계 한상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한상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청년들의 해외 한상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등 재외동포와 모국이 서로 win-



이상덕(앞줄 왼쪽서 3번째) 재외동포청장이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경제인 동포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일 LA 한인회와 산불 피해 관련 현황 및 구호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3~4일에는 LA한인회와 함께 대형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동포사회를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LA 등에 해외 주재관 파견할것”

지난 3일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LA한인회를 방문한 이 청장은 “LA 등 주요 거점 공관에 해외 주재관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외동포청 예산은 10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 원 늘어났다. 이 청장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주재관을 파견, LA 지역 동포들의 주요 현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 국민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동포청은 현행 65세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 학계,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적 공감대 형성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 정책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미대사관, 각 지역 총영사관 보고를 받고 있고 외교부와 대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등 한국 정세에 관해서는 말을

아겼다.

지난해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 청장은 이번이 첫 미주 지역 방문이다. 이 청장은 “국내에서 LA산불 피해와 관련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동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상황 안정되면 동포 간담회 추진”

이어 그는 “해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LA를 찾아 격식을 갖춰 인사하고 싶었지만, 이곳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동포청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고 LA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동포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서다. 그는 애틀랜타 방문에 앞서 LA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단을 만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또 중남부 지역인 휴스턴에서도 동포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동포청의 중점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3차 대회는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 될 것”



김기문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 서울에서 첫 번째 개최한 이후, 국내 지자체를 돌아가며 개최해 왔다. 2023년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려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한 대회였다. 당시 명예대회장을 맡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 받았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은 그동안 재외동포가 맡아왔다. 재외동포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회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회장을 서면으로 만났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에 위촉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서 대통령 해외순방, 중소기업 경제사절단, 해외 전시회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를 잘 준비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 대회장직에 위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회장을 맡게된 소감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인구감소 및 내수 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점입니다. 대회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작년 대한민국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인 6천837억 달러로 세계 6위를 달성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40% 이상 기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류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뜨겁고,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K-뷰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특히, ‘냉동김밥’과 ‘불닭볶음면’ 등 K-푸드는 미국 마트에서 품절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세계 명품브랜드가 한글을 모티브로 자켓을 만들어 한국 주요인사에게 선물할 생각입니다. K-뷰티는 지난 1분기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화장품 수출액의 72%가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과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망한 중소기업이 전시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직접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만나 참가를 요청중입니다. 한상과 로컬 사람들이 ‘한류’를 확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23차 대회는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한상경제권이란 첫째, 동포기업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둘째, 기존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에 비해 무역·투자·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실질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엄선해 세계 각국의 현지 영업사원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2025. 1. 20(월)

KIET 중소기업중



재외동포청



지난 1월 20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으로부터 오는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시장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월마트,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 납품 바이어와 비즈니스 매칭 기회 부여해 실질적인 지원성과를 창출할 생각입니다. 애틀랜타는 한상경제권 구축의 허브로서 이번 대회를 미국 및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의 공교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국내외 기업 650곳이 마련한 전시부스 중 가장 많은 60개 부스의 중소기업중앙회(KBIZ)관을 설치했다.

올해는 몇 명의 기업인과 몇 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올해는 규모를 더욱 키워 80여개 부스의 KBIZ관 설치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KBIZ관 외에도 농협, 수협 등 협단체와 기업에서 약 90여개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인천·전북·경남 등 15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몇 개 지자체에서 참여하는지요?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총 204개 전시회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경북과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장이 대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31개, 경북도 30개, 경기도 26개, 전북도 20개, 인천시 20, 전남도 15개, 부산시 14개, 대구시 10개, 충북도 10개, 경남도 7개, 기타 성남·안산·충주·서울 관악구·강서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주(州) 상무장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몇 개 주에서 상무장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이번 대회에서는 G2G 포럼(양국 정부간 무역·투자 협력 방안 등 논의)을 운영할 예정으로 11~16개 미국 주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아칸소, 네바다, 텍사스, 뉴저지주 상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고, 추가 4~5개 주 접촉 중입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경제 관료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경제 위기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우선,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대응을 위해 공식 외교채널과 더불어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협력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네트워크도 유대인이나 중국의 화상처럼 중소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와 같이 미주 한인경제인이 미 주정부 경제 관료들과 네트워킹 및 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중 수출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11일 4박 5일간 두바이와 오만을 방문해 장관과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베트남 한·베 투자협력포럼도 베트남 현지 신청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참석자를 제한했던 상황이었지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기회를 발굴할 것입니다.

“내국인 인식개선 위해 재외동포 독립운동사 편찬·교육해야”

국립인천대(총장 박종태)가 주최한 재외동포 정책 이슈포럼에서 내국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독립운동을 편찬해 이해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10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재외동포 이해와 상생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외동포 공동체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면서 국내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리더십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민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발굴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포에 대한 이해와 상생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에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권장하자는 것이다.

포럼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동포청 관계자,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학계 인사 및 국내 재외동포 관련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상덕 청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대와 재외동포 현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포럼이 첫 걸음이자 첫 결실”이라며 “동포청의 올해 사업 목표가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인데, 이것은 재외동포와 모국이 서로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생 발전하는 것으로 동포청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동포사회 성장에 따라 모국에서 재외



10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노영돈 인천대 부총장,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이민호 일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포학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본국 중심이 아닌 동포사회와 모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화교나 유대인들처럼 글로벌하게 서로 챙겨주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은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동포청 출범 이후 주요 정책 성과로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강화, 국내외 취약 동포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 그리고 통합 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로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동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면서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에서 이상덕(앞줄 왼쪽서 6번째) 재외동포청장과 박종태(7번째) 인천대 총장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독립유공자 서훈, 보훈부·동포청 협업 절실

노영돈 인천대 대외협력부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 이민호 일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기성 국장은 “재외동포 인식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와 MOU를 체결해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광주·안산·제천시 등 지자체와 처음으로 국내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재외동포의 범주에 대해 폐쇄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혈통과 국적을 혼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할린 동포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까지 동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고려인과 조선족 동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호 지사장은 독립유공자 서훈 미(未)전수자가 전체 독립유공자 중 40%인 7천285명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재외동포 유공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독립유공자 서훈 미전수 문제는 국가보훈부가 전담직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과업이지만, 관련 인력이 1명뿐이라고 지적하고, 미전수자 상당수가 재외동포라면, “국가보훈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청과 협업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재단 시절부터 25년 이상 축적해 온 동포단체 및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태조사 및 추적발굴을 진행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기 교수도 “멕시코·쿠바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훈을 전수하는 일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주고 한인족 후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쿠바 한인 후손들의 경우 분산 거주, 스페인어권이라는 언어의 장벽, 후손들이 혼혈로 인한 현지화의 심화, 1세대 부모를 기억하는 2세들의 사망 등 멕시코와 쿠바의 특수한 환경을 직시하여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수 통계 불일치 문제도 쟁점

특히 토론에서는 재외동포 수 통계 불일치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민호 지사장이 “재외동포 통계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자료”라며 그러나 여전히 그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거주국 정부 간 통계 불일치 문제, 거주국 현지 동포단체를 통한 탐문 통계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되고,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장은 따라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동포 수를 카운팅 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재기 교수도 “멕시코 거주 한인이 정부가 파악한 숫자는 990명이지만, 실제로는 6만 명으로 추정되고, 쿠바의 경우도 한인이 3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1천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동포청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동포 인구 통계 조사”라고 강조했다. **창**

한글학교 어린이합창단, 미국 카네기홀서 첫 공연

창단 10주년 맞아 백악관 · 유엔서도 합창...“노래 통해 정체성 찾고 한국문화 전파”



뉴저지 어린이합창단 단장이자 뉴저지한국학교를 이끌고 있는 황현주 교장

미국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오는 6월 21일 세계적인 음악 명소인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특별 공연을 갖는다.

한글학교 재학생들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갖는 것은 1891년 카네기홀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어린이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곡, 동요 그리고 클래식 곡까지 안무와 더불어 선보일 예정이다.

합창단 단장이자 뉴저지한국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황현주 교장은 “비록 전문 음악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카네기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큰 무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 교장은 언젠가 백악관에서 한미 양

국 대통령 앞에서 공연할 날이 오기를 꿈꿔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을 국빈 방문했을 때 한미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 초청돼 한복을 차려입고 ‘홀로 아리랑’ 등을 우리말로 연주하면서 그 꿈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됐다.

그는 “그 경험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엔(UN) 대표부 각국 대사 초청 공연도 3차례나 가지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백악관 초청 공연 이후, 합창단은 KBS 음악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도 출연했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황 교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차세대들이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창단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세계와 소통하며,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달 25일에도 설날을 앞두고 뉴저지주 버건 카운티 잉글우드 병원에서 뉴저지 한인 봉사 단체를 주최로 한인 어르신 300명을 초청한 가운데 공연을 했다. 어린이 합창단은 이날 ‘설날’, ‘고향의 봄’ 그리고 ‘꼬부랑할머니’를 불렀다. 한인의사들은 건강세미나와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져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고 황 교장은 전했다.

그는 “한국 동요와 가곡을 부르자, 어르신들께서 따라 부르시며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나누고, 세대 간 정서적 유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뉴저지한국학교 합창단은 차세대들이 모국의 문화를 배우고 합창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 민족과 연대해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창단됐다. 20명의 단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50여 명으로 성장했다.

1983년 1월 개교, 재학생은 약 650명

뉴저지한국학교는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점차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뉴욕 근교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뉴저지 북부 테너플라이 지역에서 1982년에 설립돼 1983년 1월에 개교했다. 현재 재학생은 약 650명이며, 재직교사는 47명, 그리고 졸업생은 약 900명에 달한다.

재외동포들이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 명칭을 일반적으로 ‘한글학교’라고 한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한글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문화를 비중있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한국학교’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뉴저지 한국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5년 전 교장을 맡은 황 교장은 현재 뉴저지주 패터슨 초등학교에서 27년째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뉴저지의 페스티벌로치’로 알려져 있다.

“뉴저지한국학교는 매주 3시간의 수업 중 45분은 한국 문화예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 모두가 학년별로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고 있어요. 특별과목으로는 한국 동요, 한국 무용, 한국화, 한국 예술문화, 한국 역사, 미주 이민사 등이 포함되죠. 이 외에도 운동회, 한국의 명절 행사, 감장 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주 교장은 ‘뉴저지의 페스티벌로치’

뉴저지한국학교는 다른 한국학교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황 교장은 “명절 행사에서는 민속놀이, 한과 만들기, 송편 빚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 동북부 지역의 한국학교들을 대상으로 24년째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급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나아가, 커뮤니티 병원이거나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지난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초청돼 한미 양국 정상 공식 행사에서 공연 후 양 국가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며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자 백악관 비서실장이 ‘노래 한 곡을 더 듣자’고 제안해 어린이들은 ‘투모로우’를 열창했다.



유엔(UN) 대표부 각국 대사 초청 유엔공연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맨 뒷줄 맨 오른쪽이 황현주 교장.

한국어 교육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황 교장은 “우리 학교의 비전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범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능력을 개발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며, 정서적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 호주 동포 방문 '차세대 세미나' 개최

시드니 '차세대(NextGen) 경제 세미나', 다양한 세대 참여해 성황리에 열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0~22일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해 동포간담회와 '차세대(NextGen) 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21일 멜버른에서 개최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대양주 지역 한인회 관계자 및 멜버른 주요 동포단체장 80여 명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동포사회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올해 동포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온 대양주 동포사회의 발전을 평가하고, 동포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 확대와 차세대 동포의 동포사회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포청 모델사업인 'NextGen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청장은 멜버른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한인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다문화사회인 호주에서 코리아타운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 동포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코리아타운 추진과 정교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멜버른에 이어 22일 시드니를 방문한 이 청장은 동포청의 주요 사업인 "NextGen" 경제 세미나와 시드니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드니 주요 동포단체 관계자뿐만 아닌, 이민 1.5세대 현지 태생 2세대 동포들을 비롯하여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석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전 접수를 통해 100명 규모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는 참석의사를 밝힌 100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100% 성공하는 법', '공감 마케팅'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강연에서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업계에서의 성공 노력



이상덕(앞줄 왼쪽서 6번째) 청장이 21일 열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을 전수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시드니 동포간담회에서는 김민철 교류협력국장이 동포사회와 본국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재외동포 TV 신설 사업을 비롯한 올해 동포청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포사회 미래를 위해서 한인 정체성을 가진 차세대 인재육성과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 세대교체와 함께 동포사회 역량을 강화하여 모국과 전 세계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하면서 한민족 전체의 역량이 모여져, 배가 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동참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동포청과 한인회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 구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시드니 유치, 복수국적 연령 하향, 청소년 모국방문 기회 확대,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정부 지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 청장은 경제세미나에 앞서 20일 호주한글학교협회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포청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 동포 100명 영주귀국

동포청·적십자사, 9일 동해항서 환영식...올해 270명 고국 정착 예정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 100명이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 품에 안겼다. 올해 영주 귀국할 사할린 동포는 이순귀(100)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등 270명이다. 나머지 170명은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에 정착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동포들을 맞이했다.

이날 단체입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으로 딸 에몬 토투리(72) 씨와 함께 고국 땅을 밟은 최군자(92) 할머니는 “조국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고국이 많이 발전하고 깨끗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최 할머니는 40여년 전 남편을 잃고 농사를 지으며 3남 2녀를 키워냈다. 둘째 아들이 10여년 전 먼저 한국에 와 부산에 정착해 살고 있어 부산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또 울산이 고향인 안복순(89) 할머니는 “9세 때 부모와 함께 사할린으로 건너갔는데, 부모님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국 땅에 묻히지 못하고 나만 오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안산 고향마을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변철환 동포청 차장 “안정적 정착 위해 최선” 약속

변철환 차장은 환영 인사에서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휠체어를 탄 채 9일 동해항으로 고국땅을 밟아 영주 귀국한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이 모시고 입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동포들은 버스 5대에 나눠타고, 서울, 부산, 안산, 인천 등 새 거처를 마련한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한편,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5천340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 귀국했다. 지난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 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할 수 있다.

동포청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창**

동계 아시안게임 종합 2위... 역대 최고 성적 '청초당' 봉사단도 금메달감

안중근 의사의 정신으로 뭉친 한인봉사단체...응원전부터 관광 통역 안내까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 등 총 45개의 메달을 획득,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린 가운데 주선양대한민국 총영사관, 동북3성 한국문화원, '청초당 한인자원봉사단'의 활약도 '금메달감'이라는 평가다.

한국재외동포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특히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담은 '청초당 한인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 단장 김정열)'을 비롯해 단동 한국인회(회장 송용완), 대련한국인회(회장 유대성), 무순한국인회(회장 임은선)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민간 합동 봉사단은 한국선수단 입국 환영식과 단체응원, 통역지원 및 하얼빈과 동북3성 주요지역의 역사문화 소개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먼저 4일 하얼빈 타이핑 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선수단(단장 최홍훈) 본진을 맞아 환영식을 개최한 뒤 선수단 전원에게 응원목도리와 '팀 코리아' 응원책자, 기념품 등을 전달하는 등 한국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최홍훈 단장은 "이번 대회가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선수들은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며 "최선의 경기결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얼빈을 찾은 대한민국 선수단과 가족, 그리고 응원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을 사흘 앞둔 4일 오후(현지시간) 대한민국 선수단이 중국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민간합동위원회, 한인자원봉사단 등 단체 회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청초당'은 안중근 의사(1879~1910)가 1910년 2월 14일 만주 여순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당해 3월 26일 순국할 때까지의 남긴 다수의 묵서중 하나이다. 즉 푸른 풀이 돌아나는 희망의 물가 언덕이란 뜻이다. 하얼빈공원(지금 자오린공원)은 안중근이 거사 2일 전 산책했던 곳으로 현재 안중근의 청초당 유목비가 세워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봉사단의 희생정신은 빛났다. 현지의 텃세에 따라 관람객 입장권 구입비용 마련도 쉽지 않았다. 이에 봉사단은 선양한국비자센터(오점근 센터장)와 e-동북3성 한국문화원(이사장 박신현)의 특별후원을 이끌어내 단체 응원전에 가세했다. 아이스하키 한국과 태국전, 한국과 카자흐스탄전 응원전에는 하얼빈한국인(상)회를 비롯해 하얼빈 유학생 60여명을 동원해 한국선수단이 텃세에 밀리지 않도록 치열한 응원전을 펼쳤다. **창**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김현태 신임 회장 취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양국 간 교류 더욱 활성화 할것”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는 제3대 회장에 선출된 김현태(68) 전 재일본규슈한국인연합회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오카 학센각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인사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일본 전역의 한인회 임원들은 물론 주요 한인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현지 한일친선협회 단체장과 한국의 국회의원 등 양국의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김이중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카와무라 타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함께 했으며, 주호영 국회 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참석해, 일본 동포사회뿐 아니라 올해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간에 화합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김현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본토를 떠나 해외에서 모두가 작은 대한민국이며, 전세계의 한인회 또한 작은 대한민국으로서 고국의 명예를 위해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전국의 우리 한인회는 한일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단과 더불어 의미있는 활동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는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신정부주자(뉴커머)를 대표하는 한인회들의 연합체로 2017년에 출범했다. 현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에 9개 한인회가 설



일본 후쿠오카 학센각에서 열린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립돼 있다.

지난해 말 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된 김 신임 회장은 ‘원 패밀리 (One Family)로 한인회를 이끈다’는 기치를 내걸고 ▲총연합회 역할 정립 ▲한국문화 전파에 공헌한 일본인 표창 신설 ▲세계 속의 총연합회 위상 강화 ▲지역한인회 독립성 존중 ▲전국 네트워크 강화 ▲신규 한인회 창립 유도 등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일본 담당 부이사장이자 세계한인호텔협회장인 김 회장은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를 나와 국내 주요 특급호텔에서 실무를 익혀 라마다호텔 총지배인을 지냈다. 일본에 진출해서는 IP시티호텔 총지배인 등을 역임했고, 현재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 베니키아칼튼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동포협력센터, 동포 홍보 서포터즈 ‘KrossOveR’ 운영 12개국 30명 서포터즈 활동평가회…159건 재외동포 콘텐츠 제작·홍보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제1기 재외동포 홍보 서포터즈 ‘KrossOveR’가 다양한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내국민과의 소통 성과를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1~23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에서 서포터즈 활동 평가회 및 해단식을 열었다. ‘KrossOveR’는 코리아(Korea)와 크로스 오버(crossover, 교차·융합)를 합성한 조어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융합을 통한 한인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다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브랜드화한 이미지다.

12개국에서 선발된 30명의 재외동포와 내국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지난해 8월 발대식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세계 한인의 날’, 명절, 음식, 문학 등 재외동포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로 159건의 SNS 콘텐츠를 제작, 누적 50여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내외 동포 온라인 소통 증진에 기여했다.

이들은 7개월간의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우수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전통 미술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 및 자개 공예 등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덴마크 차세대 한인으로 활동에 참여한 김한별(33) 씨는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자신의 소소한 일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는데 SNS 이용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포터즈들은 활동평가회를 통해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비롯해 여러 재외동포관련 전시관을 견학한 덕분에 재외동포들의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고, 공통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졌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 21~23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에서 제1기 재외동포 홍보 서포터즈 ‘KrossOveR’ 활동 보고회 및 해단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서포터즈들.

또한 고려 아리랑 행사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등을 취재하며 그들의 현재를 경험했고, 고려인들이 느낄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특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교류하게 된 고려인 서포터즈와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발레리아 선생님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 한국어를 배우기 힘들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인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연해주에 최재형고려인민족학교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베로니카 선생님은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근 센터장은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한민족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돕고 내국민에게는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재외동포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제2기 ‘KrossOveR’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재외동포청-병무청간 시스템 연계 통해 처리시간 10일 이상→2일 내외로 단축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앞**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1일부터 ‘재외동포청-병무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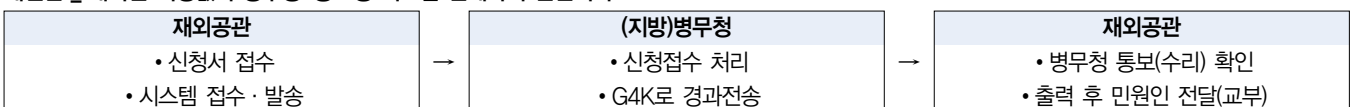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

병적증명서 접수·발급 절차 개선

현행 _ 대리인(영사) 지정 후 문서 송수신을 통해 민원처리



개선안 _ 대리인 지정없이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하여 민원처리



재외동포청,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 연이어 요청

이상덕 청장, 인천시·대한상의·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참여 요청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3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에서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을 만나 오는 4월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소개하고, 우리 농식품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K-food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 식품·유통 전문 해외 바이어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농식품 업체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농식품 분야 유수의 국내 업체들의 수출 증대를 위해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청장과 홍문표 사장은 이번 대회는 물론, 동포경제인네트워킹을 활용하여 국내 농식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food의 글로벌 열풍을 이어 나가기 위해 양 기관 간 MOU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10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만나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상의 회원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난 5일 현장점검 차 애틀랜타에서 열린 동포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와 참가 열의를 확인했다"며 "대한상의 회원사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좋은 기회이므로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만나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 청장은 이번 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인천시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에서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을 만나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소개하고, 우리 농식품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담하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오른쪽)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에 유 시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포청의 인천시 거주 동포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동포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올해를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와 모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서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상 경제권'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반도를 넘어선 큰 생각 가져야 인구문제 해결 된다”

그 동안 정부는 무려 18년 동안 약 280조 가까이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 0.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급기야 2024년 7월 1일 행안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컨트롤타워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리고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기획과 예산배분 및 집행 평가까지 총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비상사국에서 이러한 계획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사실 정부는 사후약방문 식의 정책 및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반복하면서 사회문제대로 대두된 이슈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시도 했지만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그러한 위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국정과제 및 조직개편안에 우선추진과제로 포함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불행하게도 그 동안 저출생과 지역 인구소멸 문제는 기후위기, 이념대립 및 전환기적 급진적 변화 속에서 이렇다 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고 거의 방치되어 왔다. 물론 예산을 300조 가까이 썼다면 그저 방치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원인은 정권교체기 마다 등장하는 비전문가, 어공, 안배 차원의 위원회 위원들. 보은성 인사 등으로 채워지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부처별 위원회, 지자체 위원회 등의 인재풀이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임명권자에 절대충성을 하는 인물들이다. 전문성도 소신도 없고, 사회적 정의나 글로벌 트렌드는 알지도 못하며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높은 연봉과 의전, 위유성 해외방문 때문에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향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추어 진다면 현재 저출생 및 지역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가능한 돌파구로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으로 가능성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사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재외동포는 각 나라에서 피나는 경쟁을 통해 삶의 터전을 마련한 분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주류사회에 편입되어 있다. 또한 동포와 관련된 인적자원은 동포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자국민과의 연결, 다문화가족, 다국적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 및 그 지역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은 바로 동포들이다. 또한 그 인적자원은 언제라도 고국 대한민국에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만약 동포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있다면 세수 확보 효과,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65세에서 40세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

추면 병역방상 병역의무가 40세에 끝나므로, 동포 청년들의 병역문제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고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중요한 나라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인재들이 한국에 돌아올 유인이 확실하도록 규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해외투자자들도 도망갈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고 세금부담이 크면 해외인재들은 오지 않는다. 다행히 2023년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길 바란다. 그러나 차관급인 집행을 담당하는 청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등 컨트롤타워의 주무관청으로 이민과 동포관련 사업과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면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K-Pop, K-Culture 등 K-한류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호연지기와 패기로 느낀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고구려의 후예로서 한민족 K-공동체는 전 세계가 바로 삶의 터전이고 활동무대이다. 큰 생각과 담대한 도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장**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합동 사전점검회의(2월 5일)
- 2025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발표(2월 11일)
- 동포청-한국정치학회 업무협약식(2월 27일)

2025년 2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3일~6일: LA, 휴스턴, 애틀랜타 방문
(LA 동포사회 피해복구 활동 브리핑, 휴스턴 동포간담회, 애틀랜타 재외동포경제인 간담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합동 사전점검회의 등)
-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면담, 인천대학교 재외동포정책 토론회 참석
- 11일: 2025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발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참석
- 13일: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면담
- 19~23일: 호주출장(시드니 동포간담회, NextGen 경제 세미나)
- 25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면담
- 27일: 동포청-한국정치학회 업무협약식
- 28일: 강경성 KOTRA 사장 면담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 기업 대상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동포경제인에게 모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소개하기 위해 '2025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해외 동포기업을 오는 3월 1일까지 모집한다.

근무국가는 고용 가능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이며, 인턴직 무는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등 동포기업이 희망하는 사무직 업무이다. 인턴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인턴 참여 기업 선정 기준은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인 제외되며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인턴의 업무로 사무직 또는 전문직 제공 가능 기업이어야 한다.

청소, 서빙, 물건 운반, 반복성 라벨 작업 등 단순 반복 업무 또는 사무직 범위를 넘어선 육체 노동은 불가하다. 이밖에 매월 최소 USD700 현금 제공 가능 기업(현물 대체 불가)이어야 하며 워킹홀리데이, 워킹퍼밋 등 노동비자 발급 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이 필수다.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및 인턴 수수료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은 우선 선정한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을 인턴으로 쓰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2박 3일간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기업에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턴 근로 가능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 일부(1인 최대 USD 1,000)를 지원한다.

인턴 출국은 인턴 모집과 면접, 국내 교육 등을 끝낸 다음인 5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동포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참여 방법은 전화 032-585-3226, 또는 이메일 (mjan23@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 단체,
재외동포청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외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